

투데이 칼럼

빨간 장수

장수군은 빨간색과 인연이 깊다. 그동안 장수군의 대표축재인 레드푸드 페스티벌 한우랑 사과랑은 모두 빨간색을 품고 있으며 토마토와 오미자, 고추 등 빨간색의 농·축산물을 특화한 축제로 성황리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농·축산물뿐 아니라 장수군의 고대 역사는 빨간색과 함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활발한 학술연구를 통해 역사의 맞섬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장수군은 그야말로 “역사의 훈풍”이 불고 있다.

고대사회 가야를 비롯하여 신라와 백제, 후백제 그리고 마한까지 역사문화권으로 지정된 9개 권역(미포한 권역: 고구려, 예맥, 탐라, 중원 제외) 중 5관왕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연구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는 지역이다.

역사의 사전적 의미는 “인류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 들에 대한 인식”으로



최 훈 식
장수군수

역사문화권에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 그 가치와 역사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 무려 5관왕을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의 터전 장수군이 실로 대단한 지역임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고대사회 각축장과 교두보 또는 전쟁터였던 장수군은 국방과 생산의 메카로 백두대간을 품고 있다.

또한 지리적 요충지였을 뿐 아니라 백두대간이 선불한 철을 생산하던 품격 있는 도시였다.

철을 뽑아내는 철광석과 이를 녹이는데 필요한 용광로 그리고 밤을 밝히며 국경의 긴급한 소식을 중앙으로 전하는 봉화 등 모두 빨간색으로 통한다.

철을 생산하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열정”이란 단어에서도 빨간색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불철주야 장수”로 고대사회 불과 철을 통해 낮과 밤을 뒤흔 타 오르게 하던 열정의 지역이 바로 장수군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후에도 열정으로 뚫뚫 뭉친 우리 선조들의 DNA를 물려받아 장수군을 대표하는 인물인 “2덕 3절 5의”의 황희정승과 백장선생, 논개님과 충북정경손, 순의리백씨, 백용성조서, 정인승 박사, 전해산·문태서·박춘실 의병대장은 장수출생이거나 장수와 연을 맺고 인류발전을 위해 희생하며 열정을 쏟아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듯 장수군은 모두가 부러워할 열정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열정의 빨간색이 물들어 있는 장수군은 이러한 사유로 앞으로가 기대되는 매력 있는 지역임이 분명하다.

필자는 장수군의 어제를 되돌아보며 빨간색으로 대변되는 열정을 품고 있는 이 지역에 다가 올 앞날이 설렘으로 가득하다.

이 모든 것이 빨간색의 열정으로 뒤덮인 장수, 이곳이 매력적인 이유일 것이다.

사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삼성전자가 11월 15일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이라는 추가 부양 카드를 꺼낸 가운데 올해 삼성전자 임원들도 자사주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하락기에 회사 경영 상황을 잘 아는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추가 방어와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에서 등기임원인 사내외 이사와 미등기임원 등 임원 총 60명이 자사주를 취득했다. 이들이 사들인 자사주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통틀어 총 23만2386주, 금액으로 총 157억7705만원에 이른다.

특히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사업부 수장들이 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 디바이스 경험(DX) 부문장인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9월 5일 삼성전자 보통주 1만주를 주당 7만 3900원에 장내 매수했다. 총 7억3900만원 규모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7월 11일 장중에 연고점인 8만8800원을 찍은 이후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와 실적 부진 등에 가파르게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6월 15일(종가 4만9900원) 이후 4년 5개월 만에 ‘판전자’로 밀려났고, 시가총액도 300조원이 마저 무너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조 원 규모 자사주를 향후 1년 이내에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거에도 자사주 매입이 주가를 끌어올린 사례가 있는 만큼 추가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9조3000억원어치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전날인 2017년 1월 23일 3만8000원이던 주가는 같은 해 11월 1일 5만7220원으로 50% 올랐다.

소싸움 대회 존폐 기로

소싸움 대회를 놓고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마다 전국 곳곳에서 소싸움 대회가 열리고 있다. 전북은 정읍과 완주가 해당된다.

이런 가운데 동물 학대 논란이 커지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싸움 대회에서 싸움소 두 마리는 뒤엉켜 싸운다. 커다란 뿔로 서로를 들이받으며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것이다.

소싸움 대회는 정읍과 완주 등 전국 11개 시군에서 해마다 이어가고 있다. 녹색당과 동물보호 단체가 소싸움 등 민속 경기를 예외로 정한 동물보호법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 하고 나섰다.

이들은 소싸움은 전통문화로 포장된 학대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없앨 수 없다면 우선 기한을 정해놓고 하라고 요구한다.

싸움소 육성 농가의 폐업을 유도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싸움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이뤄진다. 당연히 소싸움 현장에서는 뿔에 베이거나 뿔에 박혀서 소가 다친다. 소싸움 대회를 주최하는 자치단체들도 고민이 깊다.

완주군은 코로나19와 동물단체 반대 등으로 인해 3년째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

예산을 세웠다가 같은 이유로 대회를 열지 못한 정읍시는 다시 예산을 늘리기도 했다.

일단 대회를 치르고 경제 효과 등을 평가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분석도 해보고 평가도 해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냐, 그런 방향으로 정책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전국에서 소싸움 대회가 열리는 지역 11곳은 여전히 학대나 전통이나, 소싸움 대회의 존폐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싸움 대회의 존폐가 기로에 서있다.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산티아고 거리 기어가는 스파이더맨



1일(현지시각) 칠레 산티아고에서 크리스마스 축제 퍼레이드가 열려 참가자들이 스팼이더맨 모양의 풍선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대나무가 제일 맛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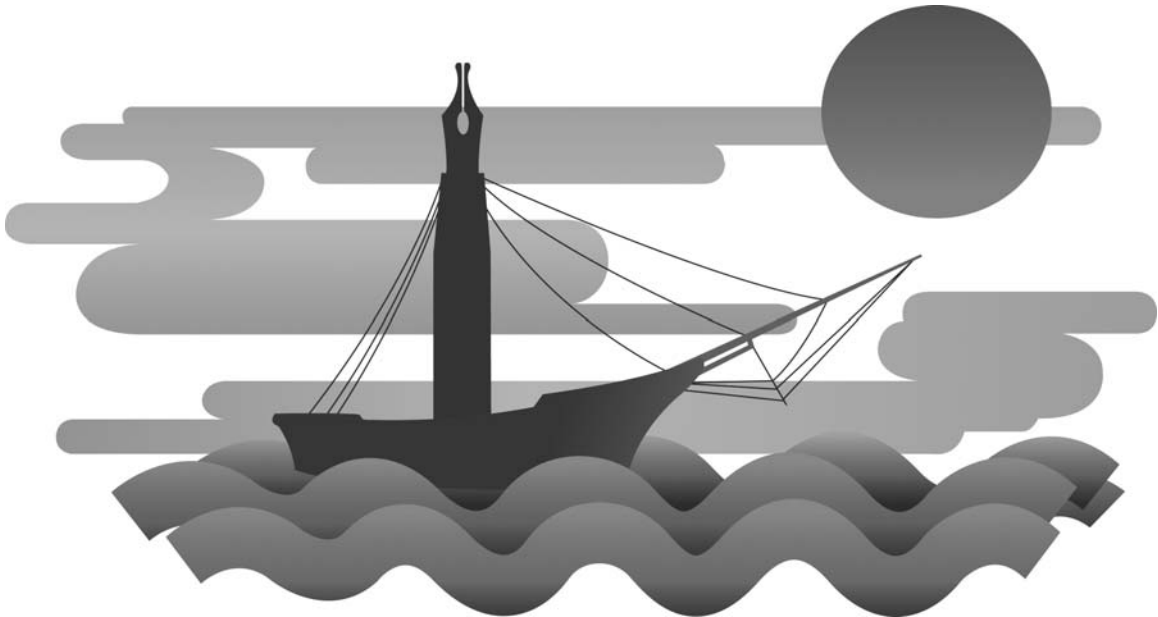


1일(현지시각) 중국 저장성 난징의 톈산 관광지에 있는 한 야생 동물원에서 자이언트 판다 ‘누안누안’이 대나무를 먹고 있다. 중국 자이언트판다 보호연구센터에서 온 자이언트 판다 7마리가 공개돼 많은 방문객이 몰려들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